

건축기념관을 계획하면서... 고향 땅 충청남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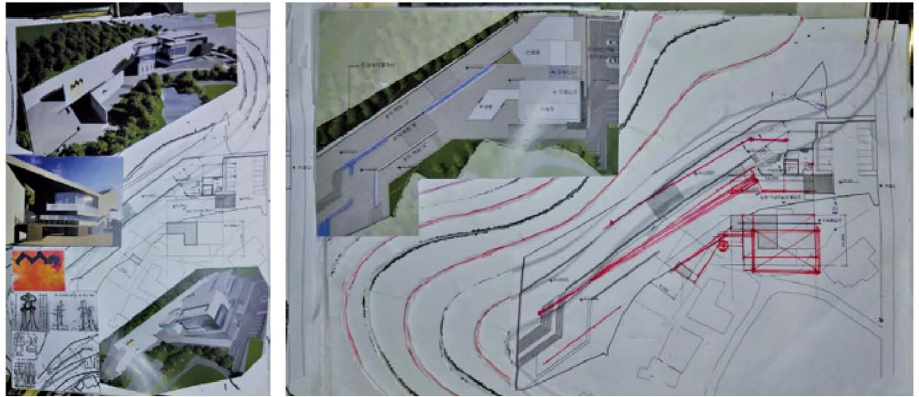
Planning a Construction Memorial Center
Hometown – Yesan, Chungcheongnam-do

글. 김득수 Kim, Deuksoo · KIRA |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

내포(內浦)!

홍성,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북부 내포지역은 차령산맥 가야산(678m)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예부터 중국과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했다. 해발 678미터 충청남도 명산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바다, 북쪽은 큰 만(灣), 동쪽은 큰 평야, 남쪽은 덕숭산과 용봉산 지맥이 이어지는 둘레 열 개 고을을 ‘내포’라 한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초·중·고를 다닌 필자는 고향 땅인 예산이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고장으로 우뚝 서도록 앞장서고,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가슴 떨리는 일을 하고 싶어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나이에 도서 ‘나의 건축반세기’를 발간했다. 이는 건축을 천직으로 삼아온 지난 50여 년의 필자 생애의 굴절을 담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고향 예산에 건축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친구 ‘일랑 이종상’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부지를 마련코자 5년 전부터 동분서주해 왔으며, 그동안 접근성을 고려해서 역사적인 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담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대지로는 예산군 소유의 천 여평, 교육청의 소유 백 여평 등을 검토했고, 이와 관련해 야외 옹석 벽화 및 건축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오백 여평 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다소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프로젝트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사업계획서는 물론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부지 조성과 관련한 디자인을 구상하면서 충남 예산지역 야외 옹석벽화, 건축관, 미술관, 후생관 등의 설계공모 지침서를 2018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건축기념관 계획안

예로부터 충청남도 예산에는 훌륭한 문화예술가들이 배출됐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을 비롯하여 조선 4대 명필 중 한분이며 인수체라는 서체를 만들어낸 ‘자암 김구 선생’, 문자 추상화의 작가인 ‘고암 이응로’, 전각과 서예의 대가 ‘석봉 고봉주’, 그리고 한국현대 미술의 살아 있는 거장 ‘일랑 이종상’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별교 조정래 문학관에 설치한 야외 응석벽화

‘일랑 이종상’은 별교 조정래 문학관에 설치한 야외 응석벽화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80m×8m)과 1997년 파리 뤼브르 미술관 가르첼 설치벽화 ‘원형상-마리상’(16m×27m), 그리고 오천원권의 울곡 이이와 오만원권 신사임당의 영정을 그린 작가로서 오백년 만에 모자가 화폐인물로 상봉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필자와 같이 고향이 충남 예산인 인사가 건축 관련 건축물을 세운 예로는 전홍수 선생이 세운 ‘한국고건축박물관’을 꼽을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전홍수 선생은 후손들이 우리 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보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향인 충남 예산에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열었다. 덕산 흥덕서로 543(대동리)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 건축 오천년의 축소판이자 한국건축 미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보 제1호 승례문을 비롯해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도갑사 해탈문, 무위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개암사 대웅전 등 전국의 건축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실물을 축소해 제

작한 모형인데, 건축기법과 자재 등 실제 건물과 똑같이 제작됐다.

충남 예산의 문화예술 인사로는 조진형 소목장이 있다.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에 뿌리내린 소목장(창호장) 조진형은 그 동안 강년전과 고택전, 경북궁 침전, 수덕사 대웅보전의 창호 보수, 안동 하회마을 민간창호 제작을 해왔다. 소목장(창호장)의 작업실에서는 진한 솔 내음이 나는데, 열여섯 어린 나이에 입문해 60년 세월을 전통창호와 함께 해온 그에게서도 비슷한 향이 나는 듯하다. 그가 60년 세월동안 쓰고 버린 대패는 몇 개나 될까?

창호장 조진형은 “창호의 최고 재료로 꼽히는 춘향목을 3년 동안 말린 뒤 오직 수공으로만 다듬고 어루만져 못 하나 쓰지 않고 꺾밧춤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창호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창호장 조진형의 전통창호를 비롯한 전통문화 숨씨는 덕산 옥계리 ‘木音(목음) 창호전수관’에서 만날 수 있다.



목음 창호전수관

필자 건축기념관의 야외 응석벽화에는 추사 세한도, 추사체 서예, 자암 김구의 필법인수체, 고암 이응로의 문자 추상화, 석봉 고봉주의 전각·서예, 일랑 이종상의 추상화·근현대 건축의 응석벽화를 설치해 충청남도 예산출신 인사들의 예술·건축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고려(8m×90m, 6m×60m)의 응석을 축조해 생동감 있는 문화 콘텐츠를 구성코자 하며, 아울러 창호장 조진형, 대목장 전홍수와 함께 야외 응석벽화와 건축전

시 관련한 설명과 자문을 구하는 등 기념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에 몸 담았던 건축사 작품과 미술동호인을 통한 예산지역에 관련된 작품 구입은 물론 작품을 의뢰 중이다.

개인적으로 건축기념관이 충청남도 예산 출신의 예술작가, 건축사와의 협업으로 문화, 공간, 예술에 대한 문학적 자산을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를 바

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웅석벽화, 미술회화, 조형, 건축 등의 문화공간이 방문객에게는 매력을 그리고 시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소자본 10여 억 원 범위 내에서 토지, 건축, 구조물 축조, 기타 조경 등으로 건축기념관이 마무리가 이루어지길 소망 해본다.



1923년도 예산군청



예산문화원(1963년 준공) _ 김세환 건축사

충청남도 예산은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이 산재한 오랜 역사 속 조상의 숨결과 자취가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이다. 오늘날 잊혀져가는 고유문화 유산을 사랑하고 건축문화 유적 등 건축답사에 임하는 자세가 곧 문화재산이라 생각하며, 필자의 이러한 철학이 건축기념관을 통해 구현됐으면 한다.



예산문화회관(1987년 준공) _ 김득수 건축사